

“지역기업들 기술혁신과 함께 가는 규모의 성장 필요”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할까. 단순히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선을 넘어 세계를 이케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을 읽고, 이를 실현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과 함께 촉발된 유럽 각국의 경쟁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그 성과의 비교와 우위의 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엑스포(Expo, 프랑스어 Exposition Universelle에서 유래), 즉 세계박람회다.

산업혁명이 태동한 영국이 1851년 세계 각국을 초청해 런던대박람회를 열었다. 이것이 최초 엑스포로, 출품 수는 1만3939점, 입장객은 600만명에 달했다. 당시 행사장은 길이 563m, 넓이 138m의 철골 구조물에 수만 장의 유리창을 붙인 일명 '수정궁'이었다. 공들여 만든 이 건축물에 영국은 그들의 자랑스런 증기기관차 엔진을 전시했다. 1853년 뉴욕에서는 엘리베이터,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는 전화기, 1878년 파리에서는 전구와 축음기, 1885년 안트베르펜에서는 자동차, 1958년 브뤼셀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등장했다. 상상으로도 가능했던 것들이 '실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 박람회에서 자극을 받은 선진국들은 절치부심하고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 다음 박람회에 내놓는 경쟁을 즐기며 후진국들과 격차를 벌여왔다.

우리나라가 세계박람회에 참가한 것은 에펠탑이 첫 선을 보였던 1889년 파리엑스포였다. 1900년 파리엑스포에서는 경북공 근정전을 모티브로 프랑스인 페레가 설계한 전시관까지 설치해 대한제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렸다. 세계박람회는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정박람회만 두 차례,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만 치렀다. 부산이 지난 2023년 '2030년 등록 박람회'에 도전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렸다. '기술 혁신의 장'을 유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지역산업 육성 핵심 거점 광주TP, 광산업서 AI까지 많은 성과 IT 일자리와 문화 환경만 잘 조성해도 젊은이들 붙잡을 수 있어

단순히 연구만 잘한다고 해서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증하고 적용해 가치가 증명되고, 민간기업이 이를 받아들여 상품으로 만들어 소비가 일어나고 기존 질서에 변화를 줘야 혁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을 목표로 삼고 대학, 정부부처 등을 정비한 것이 1960년대 후반이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의 전신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됐고, 1967년 3월 과학기술처가 발족하는 등 소위 '국가 주도형' 과학기술 시스템을 가동한 것이다. 이 시기 유럽·미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 클러스터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뛰어난 실험 성과와 과학이론도 실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할 경우 사장되며, 기술이 산업과 연계되어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 근간이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산업 클러스터들이 세계 곳곳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이언스파크,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7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서 산업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98년 테크노파크(TechnoPark)가 등장했다. 정부가 설립을 주도하되 지역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에 맞는 산

업발전 전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부터 기업 지원까지 지역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거점 기관을 설치한 것이다. 1998년 12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6개 지역에 법인 설립 허가가 났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광주·전남 테크노파크(2004년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다.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광주는 테크노파크의 존재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서 소외되어 기아자동차·삼성 가전 광주공장을 주축으로 한 중소하중첨체들이 지역 경제를 간신히 지탱해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 산업의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실증, 신기술의 기업 전수 및 기업 지원 등을 진두지휘할 테크노파크가 들어서면서 광주가 광산업 중심도시로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이어 차세대 자동차·가전로봇·3D융합·생체의료소재·헬스케어로봇·에너지융합 등 첨단산업들을 시도하고, 인공지능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광주 테크노파크의 움직임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개발기관, 전남대·조선대 등 지역대학 등의 연구를 촉발하고, 관련 기업의 이전·창업을 촉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간, 지역과 수도권 간 경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지역 기업들에게 든든한 혁신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는 제10대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만났다. 그는 대학 운동권 출신으로 제작 이후 10여년 간 노동운동에 투신한 뒤 시민단체에서 일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방자치운동과 대선캠프 인연으로 20년간은 균형발전,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공적 기관에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2010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에 출마한 적도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그가 그리는 광주 산업의 미래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테크노파크의 업무를 요약한다면.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기술혁신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만큼 지역 산업과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보육 기능부터 기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 포함·경기 안산 등 19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광주가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 거점 기능을 하면서 지자체 산업전략을 기획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테크노파크가 해야 할 일이다. 광산업에서 인공지능까지 지금까지 성과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산업 지형은 여전히 초라하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은행 신입행원 40여명 공채...80% 이상 지역 인재 채용

26일까지 원서 접수

광주은행이 올해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 인재로 채용한다.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은행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2024년 정규직 신입행원 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서류전형과 필기전형(NCS, 일반상식, 인성검사), 1차·2차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석·박사, 중견 행원(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초급 행원(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등으로 구분되며, 40여명을 선별할 계획이다.

7급 중견 행원은 ▲지역(지역인재, 디지털·IT) ▲일반(일반인재, 통계) ▲보훈제한경쟁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석·박사 분야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자가운대 통계·산업공학·전산학·컴퓨터공학·정보·통신관련학과 전공자를 채용한다.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전형절차, 일정,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 및 사람인 구직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봉 광주은행 인사지원부장은 "광주은행은 지역 인재 채용에 앞장서는 등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중장년 기술창업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는 지난 20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비롯해 자금, 기술, 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서 구제화 등 맞춤형 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광주경총은 '창업유관기관 연계 교육과정'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 중장년 재취업과 기술창업 등 보다 다양한 은퇴 후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창업을 원하는 중장년에게 창업 공간 무상 제공, 창업 성장 전주기 지원을 제공한다. 김재중 중장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광주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나라장터 23일부터 3주간 상생세일

조달기업 판로확대...최대 70% 할인

조달청이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4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 세일'에 나선다. '나라장터 상생 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43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특화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행사에는 580개 기업이 참여해 사무용 가구,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1만6086개 상품을 할인판매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489개사, 9753개 상품) 대비 각각 18.6%

64.9% 증가한 규모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2%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1만305개(64.1%)로, 특히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22.1%, 최대 45.5%까지 할인 판매한다.

조달청은 7만여개 수요기관에 할인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SNS를 통한 쿼즈 이벤트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모집 기간에 참가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박성룡 모피'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박성룡 모피' 팝업 매장에서 직원들이 밍크 재킷 등 다양한 모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10월 4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박성룡 모피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 해당 매장에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한과 패션을 모두 잡기 위해 다양한 모피 제품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전남 8월 무역수지 12억500만 달러 흑자

수출 1.3%·수입 5.9% 감소

지난 8월 광주·전남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는 반도체 수출 실적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석유제품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광주의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갔고 전남의 선박 수출이 8억 달러를 넘기는 등 선전했다. 22일 광주본부세관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3% 감소한 52억5800만 달러, 수입은 5.9% 감소한 40억5300만 달러로 12억5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8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1%, 수입은 2.5% 증가해 97억 2500만 달러 흑자다.

광주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1.1% 감소한 12억3100만 달러, 수입은 2.7% 감소한 6억300만 달러를 기록해 6억2800만 달러 무역흑자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12.1% 증가한 5.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전년 동월보다 53.3% 감소한 3억 달러의 실적을 내는 데 그치면서 전체 수출액은 줄었다. 냉장고는 1.4% 감소한 0.7억 달러, 자동차부품과 산업용 전자기기도 전년 같은 달보다 수출액이 감소했다. 공작조절기 및 냉난방기의 수출은 15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수입은 반도체 부진에 따른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인쇄회로 등 관련 부품 수입이 줄면서 중간재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반면 1차수출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8.4% 증가했는데 주로 공업용 천연고무 수입 증가(20.7% ↑)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0% 증가한 40억2700만 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34억 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77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의 공산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5% 증가한 반면 광산물 및 농림수산물 수출은 감소했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5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였지만 8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인 김 등 수산물 수출은 감소(-4.3%)했고, 배(71.7%), 면류(195.7%), 멜론(205.3%) 등은 증가했다. 전남 수출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석유제품은 전년 동월보다 14.9% 감소한 12.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선박 및 부품 수출이 475.6% 증가한 8.2억 달러로 선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3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자	
14	16	19	20	29	34	3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02,656,786			14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88,790,650			50	
3	5개 숫자일치		1,549,576			2,865	
4	4개 숫자일치		50,000			145,690	
5	3개 숫자일치		5,000			2,404,999	

박인호 광주청 조사 1국장 등

국세청 서기관 4명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이 22일 "오는 26일자로 박인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함께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박인호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전북 진안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1990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인세과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제임시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최초 시행해 주목을 받았다. 박 조사1국장 외에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사팀장, 이광성 국세청 조사1과장 등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